신행의 시작은 '귀명'에서…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㊴ 예경문

〈원문〉 "여래의 미묘하신 몸은 세상에서 짝할 수 없는 것. 견줄 바 없이 불가사의하니 그러므로 지금 공경히 예배드리나이다. 여래의 몸은 다함이 없고 지혜도 또한 그러해 일체의 모든 법에 항상 머무시니 그러므로 제가 지금 귀의하나이다. 마음으로 지은 허물인 악업과 몸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도 이미 다 조복하신 경지에 이르렀으니 법왕께 절하옵니다. 일체의 알아야 할 바를 모두 아시며 지혜의 몸이 자유자재하시며 일체의 법을 모두 지니셨으니 지금 공경히 예배하나이다. 부처님의 크신 공덕 헤아릴 수 없음에 예배하며 비유할 수 없음에 예배하며 가없는 법문에 예배하며 불가사의함에 예배하나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법의 종자가 자라나게 하소서.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원하옵나니, 부처님 언제나 거두어 주소서. 부처님! '내 이제 너를 편안케 하여 전세에 이미 깨달음을 얻게 하였고 이제 다시 너를 거두어 주노니 미래의 생에도 그러하리라' 하소서. 저는 이미 공덕을 지었으니 현재에도 또 다음 생에도 이와 같은 온갖 선근으로 원하옵나니, 거두어 주실 것을 보여 주소서."

〈강설〉 〈승만경〉의 제1장인 '여래진실공덕장' 에는 승만 부인의 예경문이라 할 수 있는 글이 나와 있다.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예배드리는 내용이다. 부처님의 공덕, 지혜 그리고 불가사의함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귀명문(歸命文)이기도 하다. 종교적 신앙생활은 예경(禮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달리 귀명례(歸命禮)라고도 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귀의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 〈석문의범(釋門儀範)〉에는 의례 때 지송(持誦)하는 귀명게(歸命偈)가 나와 있다.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모두 귀의하오니 죄를 멸하고 청정한 믿음을 내어 연화장세계와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옵니다(十方盡歸命 滅罪生淨信 願生華藏界 極樂淨土中)", 예불문의 칠정례(七頂禮)도 '귀심귀명례' 로 시작되는데 귀명(歸命)이란 말이 귀투신명(歸投身命)의 줄인 말로 몸과 목숨을 던져 돌아가 의탁한다는 말이다. 또 귀순교명(歸順敎命)의 뜻이 있어 부처님의 교명(敎命)을 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환귀본명(還歸本命)이라 하여 명근(命根)을 그 근본에 돌려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중생의 육근(六根)이 일심에서 일어난 것인데 스스로 그 근원을 등지고 수많은 외부 경계에 끌려가 허덕이게 된다. 그래서 모든 감관을 거두어들여 근원인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귀명이란 말에 이와 같은 세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범어를 음사(音寫)해 쓰는 나무(南無: namas)라는 말도 귀명의 뜻이다.

불교의 신행 자세 혹은 신앙 정서는 귀명에서 시작하여 찬탄하고 참회하며 발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대승경전에서는 거의 공통으로 귀의, 찬탄, 참회, 발원의 네 가지 요소가 다 설해져 있다. 승만 부인의 예경문 안에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다.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거두어 달라는 간절한 청을 부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지극히 감동스럽다.

대승기신론 서두에도 저자 마명보살이 삼보에 귀의하며 논을 짓는 뜻을 밝힌 귀명게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온 시방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색신이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대비하신 분과 그리고 그 몸의 본체와 나타나는 모습이신 법성 진여 바다의 한량없는 공덕의 창고와 여실히 수행하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돌아가 의지하나이다." 삼보에 귀의하는 말을 이렇게 설해 놓았다. 또 부처님께 예배하는 예법을 정례(頂禮)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은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예를 올리며 하는 말이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서 가장 높은 부위인 이마를 부처님의 가장 낮은 발에 예를 올리는 것으로 공경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고통 벗으려면 '無明' 먼저 제거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㊷ 중생심 바로 알고 자성불 깨닫자

5. 견성성불을 위한 길

△분별심으로는 부처 못 만나

모든 생명체는 항상 본능적으로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뭘 보려 하고, 알려 하고, 찾으려고 하는 작용이 있다. 우리 인간 역시도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생명체이다. 그러다 보니 감각기관에 의지해 알려고 하는 분별심이 이미 훈습되어있다. 따라서 기도와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부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결코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처는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찾는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강경〉 '제5 여래실견분' 에서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라고 형상이 아닌 진실한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천리만리 멀어져 버리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은 더욱더 암흑 속으로 빠지게 된다. 찾으려는 마음이나 구하려는 마음 모두가 생멸하는 마음이다. 이 생멸하는 분별심으로는 결코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

△무분별심 되어야 부처 만나

자성불을 만나려면 생멸이 없는 무분별심(無分別心)이 되어야 한다. 구해서 얻어지고, 찾아서 얻어지는 부처라면, 그 구함이 없으면 깨져버릴 것이고, 찾는 바가 없어지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만약 구하고,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부처라면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구하고,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구하는 바 없고, 찾는 바 없이 본래 갖추어진 영원한 부처님을 만나야 한다.

△견성 못하는 이유, 마음의 장애 때문

우리가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명에 의한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장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번뇌의 장애[煩惱障]'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적인 장애[所知障]' 이다.

번뇌의 장애란 번뇌로 인해 항상 마음이 요동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의 마음은 무명(無明) 업식(業識)으로 인해 항상 이런저런 번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법(諸法)에 대한 실상(實相)을 깨닫지 못하고 자성불 또한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걸 '번뇌의 장애' 라고 한다.

지적인 장애는 '소지장' 이라고 하는데, 지혜의 장애를 말한다. 무명 업식으로 인해 지혜가 식(識)으로 전변(轉變)하여 지적인 장애가 일어난다. 이때 내 마음속에는 꼭 '나' 자신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보이는 대상은 남이라고 판단하는 착각이 자꾸 생겨난다. 이래서 아집(我執)이 생기고, 아견(我見)이 생기고, 아상(我相)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이는 바깥 대상 경계에는 법에 대한 집착인 법집(法執)이 생기고 법견(法見)이 생겨난다. 이것은 마치 눈에 병든 사람이 헛것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신에 분열증과 착란증을 일으킨 사람이 환청과 환각을 체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에 지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 라고 하는 아견을 내면서 아집을 일으키고 또한 '일체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 법집과 법견을 일으켜서 나와 모든 존재에 대한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미혹에 빠져서 전도미망(顚倒迷妄)을 일으키는 중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번뇌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장애인 것이다.

또 우리 마음은 이미 물들어 있다. 감각기관을 통해 접촉하는 형상과 색깔에 물들어 있고, 좋은 소리에 물들어 있고, 맛 나는 음식에 물들어 있고, 내가 집착하는 것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물든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꾸 취하려고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 하는 경계를 취사(取捨) 선택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 바깥 경계에 의해 오염된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요동치는 것이다.

고통을 벗어나려면 바로 중생의 근본 무명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㊴ 말룽끼야뿟따에 대한 경 2

분별심 있는 한 괴로움 못 벗어

"말룽끼야뿟따여, 어떤 사람이 독이 짙게 묻은 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구들이나 동료들, 친지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그를 외과의사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가 '나는 나를 쏜 사람이 귀족인지 아닌지, 이름과 성이 무엇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가 검은지 하얀지, 온 곳이 작은 마을이나 부락인지 도시인지, 보통의 활인지 석궁인지, 활줄이 갈대인지 힘줄인지, 깃털이 독수리의 것인지 까마귀의 것인지를 알아야 뽑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말룽끼야뿟따여, 이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알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실을 사실대로 바르게 알 수 있는 원리는 생겨나지 않는다. 모양이 생겨나기 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왜 본질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지 아는 것이다.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개념적으로 잘 접근하더라도 그것은 수박 겉핥기일 뿐이다. 본질은 언어와 모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것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뭇 삶들은 개념 속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질을 개념 속에 가두려 한다. 본질을 흐리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시선이 계속 밖을 향함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날, 오조 법연 선사는 세 명의 제자와 밤길을 걷고 있었다. 들고 있던 등불이 갑자기 꺼지자 선사는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원오 스님은 "발밑을 보라[照顧脚下]"라고 대답했다. 원오 스님은 주어를 생략했다. 이것이 원오 스님이 전달하고자 한 가르침이다. '나[我]' 의 발밑을 보라는 것이 아니다. '나[無]' 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다. '나[我]' 가 있고, '나[我]의 것' 이 있고, '나[我]의 존재' 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나[我]' 에게 필요한 것은 생겨나게 명령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게 명령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나[我]' 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삶이나 수행에서 '주어' 는 존재하지 않는데 뭇 삶은 자신이 주어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주어로 사는 한 '조고각하' 의 뜻은 오리무중이 된다. 어둠과 밝음의 경계를 알 수 있을까? 어디에 점을 찍어야 정확한 경계이겠는가? 몸과 마음으로 인식하려고 하면 벌써 견해에 빠져버린 것이다. 경계를 구분하려는 그 한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림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림자를 알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보고 듣고 알고 하였던 모든 것들이 그림자의 관념이지, 사실은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을 거짓으로 아는 마음이 바로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본질을 아는 것은 오온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감각이 일어나면 본질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만드는 것과 같다. 물론 생각과 감각이 아니면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고 반문하겠지만, 이 생각이 본질을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물질은 거짓[幻]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이 거짓[幻]으로 만들어진 것을 모를 뿐이다.

작가가 언어로, 화가가 물감으로, 음악가가 음표로, 도공이 흙으로 작품을 만든다. 이들이 처음 시도할 때의 마음과 끝날 때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진행 과정에서 수정하고 변화하고 빼고 넣고를 수 없이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도 보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수많은 견해가 생겨나고 사라진다. 박물관의 전시품들은 처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무엇' 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전시품들은 지금 사람들의 견해로 평가될 뿐이지, 그 처음과 같은 견해는 분명 아닐 것이다. 뭇 삶의 사대오온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과 비슷하다. 과거로부터 흘러온 것을 지금의 견해로서 보고 있으니 "우연히 맞을 수 있는 것이 있겠지"하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견해에서의 착각이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은 과거이다. 과거는 진실이 아닌 견해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사대오온에 지금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 없음을 알 때, 모든 근심에서 풀려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